

칼럼

임성욱 시인 · 사회복지학박사



그래도 수명만큼은 공평하잖은가

대한민국의 주인은 누구냐. 혹은 국민이라 한다. 또는 대통령이라고도 한다. 과연 그럴까.

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꺾발 부릴 수 있는 기간은 기껏해야 2, 3년이다. 처음 6개월 정도는 업무 파악하느라 바쁘고 임기 말에는 대선 때문에 식물인간이나 마찬가지다. 그 전 1년부터는 권력누수가 심해진다. 때문에 임기 중 2, 3년에 하고자 하는 정책을 거의 펼쳐야 한다.

이미저도 휘하 공무원들이 복지부동하거나 간신들이 눈을 가리면 사실 임기 5년 동안을 얼굴마담으로 끝낼 수도 있다. 이런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최고 권력자라 할 수 있을까. 물론 대통령 자리는 막강하다. 강단진 생각으로 정의적 측면에서 양질의 정책을 펴간다면 멋진 대통령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역대 대통령마다 수많은 오욕들로 점철되었다. 물론 질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국민이 주인이라는 말도 믿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까지도.

물론 헌법에는 주권재민이라 되어 있다. 하지만 돈과 권력의 노예들에게, 정확히 말해서 이 나라 1%의 등을 받쳐주는 집권인수도 있다. 수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은 재벌 등 상위 0.0001%라 한다.

상당히 범위를 넓혀주면 상위 1%라고도 한다. 상위 1%가 주식 배당소득의 92%를 가져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쏠림현상은 금융자산 보유가 소수 부유층에게만 국단적으로 치우쳐 있다는 뜻이다.

실제로 삼성가를 봐보자. 삼성이건희 회장은 식물인간 상태라 추정되면서도 2018년도 주식배당 소득이 무려 4,747억 원으로 국내

1위였다. 이재용 삼성부회장은 1,399억 원으로 2위, 이견희 회장 부인 홍라희 여사는 767억 원으로 5위를 차지했다. 딸인 이부진 호 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도 270억 원으로 공동 10위를 기록했다.

이들의 주식배당소득을 모두 합하면 무려 7,453억 원이다. 한 해 동안의 것만 그렇다는 것이다. 매년 이런 템포로만 쏠여간다고 가정해도 그 액수는 실로 엄청난 것이다. 다른 재산까지 합한다면 가히 천문학적이 아닐까. 이러한 부의 쏠림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깊이 생각해볼 일이다.

'불로소득'이라 할 수 있는 자본소득의 불평등은 전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효과가 매우 크다. 그 파급력은 가히 상상할 수도 없다. 손끝 까딱 않고도 시간만 흐

르면 불어나는 돈벼락에 일부 특수계층은 오히려 무기력증에 빠질 정도다.

그들 중 일부는 국가도 어찌지 못하는 것 같다. 국내에서 사업을 하면서도 미국 등 외국 국적 등으로 활동하는 자들도 많기 때문이다. 합법을 가장한 부적절한 방법으로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그 많은 불로소득을 하면서도 말이다.

그럼에도 국가는 그냥 보고만 있다. 왜일까. 알 수 없다. 그들만의 색안경 안에서 거미줄처럼 얽힌 연들이 그렇게 만들 것이라는 추측만 할 뿐 결국 이 나라는 1%, 더 적게는 0.1% 내지 0.001%가 손아귀에 쥐고 있다. 더 범위를 좁히면 상위 0.0001%가.

권력은 쥔다. 때문에 국가공권력도 그에 예측되는 경향이 강하다. 경제력은 영원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그들은 세계 각국을 드나들며 망껏 살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의 피를 빨아가면서.

그래도 한 가지 위위가 되는 안주는 있다. 조물주가 수명만큼은 공평하게 줬다는 것 말이다. 아무리 꺾발을 부러도 그들의 수명 역시 8, 9십년을 넘기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 삼성이건희 회장이 건강과 수명을 돈으로 살 수 있다면 지금 저렇게 있겠는가.

社說

해빙기 안전사고 주의해야

3월은 여러 재난 중 산불을 특히 조심해야 하며 황사와 대설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파로 겨울에서 봄으로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이므로 재난안전사고가 발생하기 쉬운 때이다. 행정안전부는 3월에 중점 관리할 재난안전사고로 산불, 화재, 황사, 해빙기 안전사고, 대설을 선정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2009~2018년 산불은 3월에만 112건 발생해 4월 96건 등보다 많은 횟수를 기록했다.

2007~2016년 건조 특보는 월평균 13회였지만 3월은 25회로 다른 달보다 월등히 많아 산불이 일어 나기 쉬운 것으로 나타났다.

산불은 입산자 실화나 논·밭두렁을 태우다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산림이나 산림과 인접한 곳에서는 화기 취급에 주의해야 한다.

화재도 3월에 가장 많이 일어

난다. 전열기 등 난방기구 사용이 많은 겨울철보다 화재가 잦았다.

2013~2017년 화재 건수는 월평균 3천85건이지만, 3월은 5천250건에 달했다.

3월은 황사 유입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도 하다.

2007~2016년 황사 특보는 3월 61건, 5월 54건, 2월 30건, 12월 26건 등이었다.

3월은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는 시기인 만큼 해빙기 사고는 물론 겨울의 끝자락에 닥칠 수 있는 대설까지 주의 대상이다.

2008~2017년 3월 대설 피해는 총 4회 발생해 279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를 일으켰다.

정부는 3월에 발생하기 쉬운 재난안전사고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중점 관리해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재난을 예방하고 대비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기 때문이다.

인터넷 호남신문

www.i-honam.com



신문으로 배우는 千字文

存以甘棠

存以甘棠

▷ 뜻: 주(周)나라 소공(召公)이 남국(南國)의 아가위나무 아래에서 백성(百姓)을 교화(教化)했음.

공동주택 소방차 전용구역, 나부터 실천하는 생명의 공간

소방서는 화재예방 캠페인, 소방안전 홍보활동 및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등을 꾸준히 실시하고 있다.

그리하여 요즘 긴급차량이 출동할 때 도로 위의 차량들이 길을 터주는 모습을 TV나 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됐다.

하지만 공동주택 등 아파트 출동로는 어떠한가? 공동주택에 사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한번쯤 노란색 바탕에 흰색 글자로 '소방차 전용구역'이란 표시를 봤을 것이다.

이곳은 화재 등 재난 사고 발생 시 소방차가 현장에 출동하여 화

재를 진압하고 인명을 구조하기 위한 최소한의 '생명의 공간'이지만, 아파트 내 자동차 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정차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충북 제천스포츠펀터 화재와 경남 밀양제철병원 화재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기 위해 지난 2월 9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되어 8월 10일부터 아파트 단지 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가 의무화됐다.

소방기본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주택 건설사업 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공동주택 중 100세대 이상 아파트와 3층 이

상의 기숙사는 소방차 전용구역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누구든지 소방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방해행위를 해서는 안되며, 방해행위를 할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고 명시돼 있다.

이쉬운 점은 소방기본법 시행 후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만 적용되어 기존 공동주택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재 소방차 전용구역 설치를 위한 지속적인 설치 홍보와 계도를 진행하고 있으나 기존 공동주

택의 경우 아파트 주차장 등의 이유로 설치를 꺼려하는 것이 사실이다.

소방서는 아파트 화재 시 신속한 인명구조와 화재진압이 우선돼야 하는 환경으로 점차 개선돼야 한다는 필요성에 맞춰 기존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 줄 것을 적극 독려 중이다.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이 표시된 곳은 우리가족의 안전지킴이 역할을 하는 주차공간임을 잊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무심코 지나쳤던 '소방차 전용구역'이란 노란색 실선에 작은 관심을 보내주어야 할 때이다.

임창현 / 담양소방서 대응조사팀장



독자투고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222-5548

"독자의견을 환영합니다" E-mail : ihonam@naver.com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이 행복한 대한민국

서로의 입장을 바꿔보면 어떨까요?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보다 상대방 입장에서 한번 더 생각하면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지 않을까요?

당신의 작은 배려가 상대를 미소짓게 합니다. 세상을 더욱 따뜻하게 합니다.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한국언론진흥재단